



말씀 · 기도 · 감사 그리고 선교

연중 제8주일

2022년 2월 27일(제522호)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평일미사 후, 온라인
	올트레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입당_4 봉헌_513, 215 성체_187, 특송 파견_461 / 해설 권현정(안젤라) 제1독서_한영준(대건안드레아) 제2독서_김태현(대건안드레아)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Sylvia Sicut 2nd Reader_Alyssa Kwon Prayer_Susan Chough

입당송 | 시편 18(17),19-20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제1독서 | 집회 27,4-7 Sirach 27:4-7

화답송 |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Psalms 92-2, 13-14, 15-16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to sing praise to your name, Most High, To proclaim your kindness at dawn and your faithfulness throughout the night.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The just one shall flourish like the palm tree, like a cedar of

Lebanon shall he grow. They that ar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shall flourish in the courts of our God.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 They shall bear fruit even in old age; vigorous and sturdy shall they be, Declaring how just is the LORD, my rock, in whom there is no wrong. ◎

제2독서 | 1코린 15,54-58

First Corinthians 15:54-58

복음환호송 | 필리 2,15.16 참조 Philippians 2:15d, 16a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Shine like lights in the world as you hold on to the word of life. ◎

복음 | 루카 6,39-45 Luke 6:39-45

영성체송 | 시편 13(12),6 참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 - 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이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심판합니다. 상대의 작은 허물과 미성숙함을 들추어내며 그의 단점을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우월감에 우쭐함을 느끼며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사실 눈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매우 예민한 곳 중 하나입니다.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모여 이루어져 있고,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에 비해 들보는 티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보는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며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들보가 작은 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만큼 자신의 눈 속에 거대한 들보가 들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성찰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 있어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들보가 들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 생각과 주장이 얼마나 완고해진 상황이라는 말일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눈의 들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들보를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스스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야 앞이 밝아져 다른 형제의 티도 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나는 일인지에 따라 분간하지요.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앞의 상황은 돈의 들보, 뒤의 상황은 자아라는 들보가 들어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고해진 내 눈의 들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들보를 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울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자주 읽고 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눈의 들보를 인식하고 용감하게 빼내어, 새로운 시선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보도주간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DAON 한식 맛집 101 Town & Country Dr. #C Danville, CA 94526 Tel 925-837-1027</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제중조절, 통중조절, 제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닉 부이치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며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 8세 이후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신앙이 투철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닉과 똑같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왼쪽 발도 짧았습니다. 그 엄마는 아기의 장애를 고치려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느님께 기적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들은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 주셨군요. 저는 지금껏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도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주님의 고통과 죽음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느님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통도 때로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고난을 허용하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주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은, 어머니가 젖먹이 자기 아기를

잊는다 해도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는 사순시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2022년 사순시기 우리 공동체의 실천 목표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눅 42,5)

음기 묵상: 음기 쓰기와 통독 중 한가지 선택
쉬는 교우와 새 교우를 위해 기도하기
묵상 노트는 본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www.tvkcc.org/lent2022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TOYOTA NISSAN CHEVROLET HYUNDAI SUBARU KIA MAZDA JEEP RAM BUICK GMC</p> <p>책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p> <p>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 N2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gin@gmail.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2022년 사순시기 우리 공동체의 실천 목표

- 욕기 묵상: 욕기 쓰기와 통독 중 한 가지 선택
- 쉬는 교우와 새 교우를 위해 기도하기
- 묵상 노트 다운로드: 본당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tvkcc.org/lent2022> (인쇄가 불가능 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3월 2일(수): 재의 수요일 미사(오전 9시 30분, 오후 8시)
※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이며 미사 중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3월 3일(목): 미사 없음
- 3월 10일(목): 성시간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영어), 8시(한국어)

■ 성주간 주요 전례 일정

- 4월 10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오전 9시)
- 4월 14일(목): 주님 만찬 미사(오후 8시, CCOP와 함께)
- 4월 15일(금): 십자가의 길(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오후 6시)
- 4월 16일(토): 파스카 성야 미사(오후 8시, CCOP와 함께)

■ 사순시기 Rice Bowl 봉헌 안내

- 사순시기 동안 절제와 희생을 실천하여 마련한 금액을 Rice Bowl에 모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된 금액은 오클랜드 교구를 통해 CRS(Catholic Relief Services)로 보내져 소중히 사용됩니다. (www.crs.org 참조)

■ 전례부 봉사자 모임

- 일시: 2월 27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성당 회의실 A
- 안건: 사순 및 성주간 전례준비

■ 사랑의 모후 꾸리아 3월 월례모임(Zoom Meeting)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
- 일시: 3월 3일(목), 오후 8시 - 9시 30분
- Zoom ID: 934 824 5417, Passcode: 1004

■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3월 6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성당 회의실 A
-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 신/구약 성경 완필자 추가 파악

- 성경 전체를 완필하신 분께 춘천교구 주교님께서 축복장을 수여하실 예정입니다.
- 축복장 수여는 주교님의 우리 공동체 방문 기간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9월 예정)
- 성경을 완필하신 분 또는 8월 15일 기준 완필 예정자께서는 전례부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박주암 레오폴드(925-852-1868)

■ 2월 반모임 일정

루 카	4	2/27(주일) 11AM	온라인	925 551 1233
-----	---	---------------	-----	--------------

■ 2021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자등록 번호와 영문 이름을 표기하셔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 방법: 사무장 테이블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재 또는 이메일(office@tvkcc.org) 신청

■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www.tvkcc.org/shopping-at-amazon/>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25	\$240	\$650	\$20	\$20	\$2,35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이상덕(1-3), 이용호(1,2), 조원정(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용호(1,2)
- Bishop's Appeal
이용호(1,2)
- 감사헌금 조원정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A Christian Response to Bioethical Challenges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for Christians facing new bioethical challenges; may they continue to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life with prayer and action.

■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십시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